

“권위주의적 政權이 많은 熱病”

流言蜚語

1. 流言蜚語의 定義
 流言蜚語란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2. 流言蜚語의 傳播
 流言蜚語는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眞實한 사실과 無關係로 傳播되는 虛構의 消息을 指하는 말이다.

3. 流言蜚語의 防止
 流言蜚語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眞實한 사실을 眞實하게 傳播하고, 虛構의 消息을 傳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眞實한 사실을 眞實하게 傳播하고, 虛構의 消息을 傳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官주도의 언론통제가 실질적 主犯

口傳통해 전달... 과장·왜곡은 필연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역효과 불러 일으키기도

1. 官주도의 言論통제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2. 口傳통해 전달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3. 흑색선전의 逆효과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鄭慶均 (서울대 대학원교수·보건의사회원)



1. 官주도의 言論통제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官주도의 言論통제는 實질적 主犯이다.

2. 口傳통해 전달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口傳통해 전달되는 消息은 眞實하지 않다.

3. 흑색선전의 逆효과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흑색선전은 지식층엔 逆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號外 世上

1. 世上의 眞實
 世上의 眞實은 眞實한 사실이다. 世上의 眞實은 眞實한 사실이다. 世上의 眞實은 眞實한 사실이다.

2. 世上의 虛構
 世上의 虛構은 虛構의 消息이다. 世上의 虛構은 虛構의 消息이다. 世上의 虛構은 虛構의 消息이다.

3. 世上의 眞實과 虛構
 世上의 眞實과 虛構은 眞實한 사실과 虛構의 消息이다. 世上의 眞實과 虛構은 眞實한 사실과 虛構의 消息이다. 世上의 眞實과 虛構은 眞實한 사실과 虛構의 消息이다.

유엔비어는 정부·국민 모두에게 이득없어

1. 유엔비어의 眞實성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2. 유엔비어의 利益
 유엔비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利益을 無해하다. 유엔비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利益을 無해하다. 유엔비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利益을 無해하다.

3. 유엔비어의 眞實성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유엔비어의 眞實성은 眞實하지 않다.

씩 좋은 것이, 더 좋아질 때.

남자패션 캠프리지가 브리티쉬 클래식문화의 '캠브리지 멤버스'로 새로와졌습니다.

웃은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이다.
 과거를 되돌아봄을 통해 저하는
 웃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문화'라는 믿음으로,
 작은 처장거리 하나까지도 잘 짜여진
 '브리티쉬 클래식의 웃문화'를 제안합니다.

오늘, 씩 좋더라도 더 좋아져야 할 때.
 80년대 - 그 우수품의 시대.
 80년대 - 그 우수품의 시대. 80년대 - 그 우수품의 시대. 80년대 - 그 우수품의 시대.

On Duty
 In Party
 In Street

멋부리지 않은 듯이 멋부리는 정통 방식 - 캠프리지 멤버스

20여년간, 처음 입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구하는 것은 본디 서양사람들의 옷인 양복을 추구하는 정통 방식의 정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브리티쉬 클래식은 작은 옷이 되었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입을 옷은 '멋'이 단순한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믿음으로, 웃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문화'라는 믿음으로, 작은 처장거리 하나까지도 잘 짜여진 '브리티쉬 클래식의 웃문화'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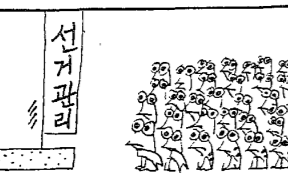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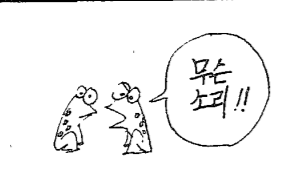
CAMBRIDGE MEMBERS SINCE 1966 SEOUL

『정통』은 캠프리지 멤버스가 만들어 낸 정통 방식의 정통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브리티쉬 클래식은 작은 옷이 되었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입을 옷은 '멋'이 단순한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믿음으로, 웃기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문화'라는 믿음으로, 작은 처장거리 하나까지도 잘 짜여진 '브리티쉬 클래식의 웃문화'를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461-15 캠프리지빌딩
 우편번호 1335 전화 586-0333

여로니모

오 <52>



새로 읽기

윤석성 著
『문명사관의 석성』의 첫 번째 시집 『새로 읽기』가 출간됐다. 이 시집은 『겨울노래』 『장미꽃』 『꽃밭일기』를 비롯하여 총 58편의 시를 4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데, 작가는 이 시집을 통해 아픈 우리 모두의 것이며 서로 아픈 살갓을 비벼냄으로써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밝은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대 열 박영근 著
박영근씨의 두번째 시집 『대 열』이 출판문화사선 27번으로 간행되었다. 이 시집에서는 총 58편의 시들을 실고 있는데 80년대 노동현실에 대한 정제적인 묘사를 발표, 투쟁하는 노동자의 역동적인 모습과 오랜 현장경험에서 얻어진 노동자들의 정서를 언어로서 응축시키고 있다.

참여의 경제 정갑영 著
이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예를 들면서 한 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모든 결정이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에 민주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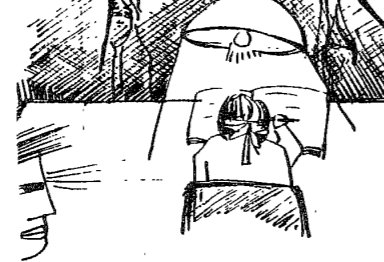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참여의 경제

이 노동을 기쁨을 느끼게 하는 매우 보람찬 일이며, 앞으로 자신의 조향에 맡겨 놓는다. 문학가 글이 순수하고 참여로 나누고자 하는 세태에 대해 『구분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는 문학에 있는 것들의 관건은 자신의 객체성에 힘써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나의 시에 내가 처해있는 시대와 상황을 담고자 노력한다면 순수하고 참여의 문제 또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재조합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어느날日記



학문에의 열정과 잡다한 자아상을 배웠는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중·고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얻어내었던 것은 순세지향적인 알파한 사고와 공동체의 삶에는 무신경한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고 제도교육에 길들여진 경직되고 편협한 논리가 전부일 뿐이다. 보라 『잡살기』 위해 『대학원』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 몇년간을 우리는 삶의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미분, 적분과 부정사, 동명사와 「반공」과 「자랑스런」 제5공화국 출신들이들 달달 암기하면서 보트처럼 살아오게 고자적인 것이다. 그렇기 내가 생각했던 대학은 고난과에 얻는 달달한 열매였다.

보라 잡살기 위한 목적이 아주 배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나는 무언가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있고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입학후에 너무나 상상

1년전에 대학을 위해 온갖 열정을 치우어왔던 나의 고3 시절이 불현듯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동생의 방은 운동 선전주자로 도배가 되듯이 했다. 『필승』이나 『하연원』도 『영광의』 그 날까지』라는 문구가 어지럽게 붙여져 있고 국어, 윤리, 국사같은 낯익은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수북수북 쌓여있었으며 책상한켠엔 딱딱한 커피가 싸늘하게 식어져 놓여있었다. 생기가 없어 그저 칙칙한 방. 대학입학이라는 오도된 영광이 딱딱하게 살아 숨쉬는 방. 그것이 고3짜리 내동생의 방이

있고 생활이었다. 정서도 낭만도 한치의 여가도 허물이 안되는 구역이었다. 그러나 나의 고3 때는 음악을 듣는 자유는 허락되었다. 속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지끈거릴 때는 음악을 들으며 그나마의 낭만을 누린다고 누렸었지만 『그들의 음악』에 시련성이 안 나왔다』는 일마의 심각한 분석이내 동생에게 선 그 마지막 낭만까지도 철회된 지 오래였다.

제도권의 횡포와 조형모식적 교육형질 속에서 병들대로 병들어 버린 교육과 이 엄청난 지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다. 자질한 삶의 질들을 묻게 되었을 수 있는 애정 어린 가슴을 느꼈는가. 무언가 거머쥘 수 있는 울바라

내동생 방은 대학입학이라는 오도된 영광만이 숨쉬고 있어 동생에게 제도교육의 허상과 삶의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를 만나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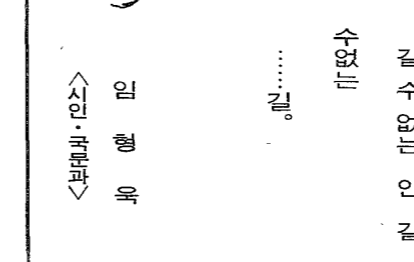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천로역성



『천로역성』은 김명희의 1인자이자, 女流文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우리 女流文學의 실재물 소담스레 그려놓았다. 특히 『蘭雲軒集』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는 그녀의 手記上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매 작품에 대한 성실한 考證은 讀者의 信任을 獲得하는 功을 奏했다. 더욱 『遊仙詩』에 비친 夢幻의 詩學은 同僚간의 切磋하거나 正작 영적교감으로서만 가능한 일기(에 본 저서에 비친 저자의 詩와 夢幻의 詩學에 對한 詩學에 對한 研究는 功을 奏했다.

김명희 著 「許蘭雲軒의 文學」

『蘭雲軒集』의 1인자이자, 女流文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우리 女流文學의 실재물 소담스레 그려놓았다. 특히 『蘭雲軒集』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는 그녀의 手記上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매 작품에 대한 성실한 考證은 讀者의 信任을 獲得하는 功을 奏했다. 더욱 『遊仙詩』에 비친 夢幻의 詩學은 同僚간의 切磋하거나 正작 영적교감으로서만 가능한 일기(에 본 저서에 비친 저자의 詩와 夢幻의 詩學에 對한 詩學에 對한 研究는 功을 奏했다.

비교문화적 연구로 許蘭雲軒의 文學사적 위치 조명

『蘭雲軒集』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는 그녀의 手記上 오류를 바로 잡았으며, 매 작품에 대한 성실한 考證은 讀者의 信任을 獲得하는 功을 奏했다. 더욱 『遊仙詩』에 비친 夢幻의 詩學은 同僚간의 切磋하거나 正작 영적교감으로서만 가능한 일기(에 본 저서에 비친 저자의 詩와 夢幻의 詩學에 對한 詩學에 對한 研究는 功을 奏했다.

임정호 <총과대 입학과>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김갑기 <청주대·국문과교수>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사랑 나누기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사랑 나누기

『이제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며, 동단은 곧 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작가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는 체계적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히는 허영은(작명 3) 양.

『귀무덤』 『비물조』 『저녁행』 3편의 시가 『정신의 치열성이 살아있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감각이 새롭다』는 평을 받으며 허영은 제19회 한국문화 시부문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허영은, 학생으로서 작가가 된 지금의 각오를 묻자 『문학에 있어서만은 일찌기 프로의식을 갖고, 나의 세계를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또 글이 자신의 기쁨을 감추려 하지는 않았다.

『시의 공중성』이란 글 영훈의 공

주식회사 모나미

참, 잘나왔어요!

국내에선 모나미 수성볼펜만이 「스텐레스-틸」을 사용합니다.

「스텐레스-틸」의 장점 - 마모율이 적어 수명이 길다, 불이 빠지지 않고 충격에 강하다.

파격적인 값의 보급형 모델! 스텐레스-틸, 불변성 잉크! (S-1500)

중후한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 스텐레스-틸, 불변성 잉크! (S-2000)

“크래시”한 타입의 우아한 멋! 스텐레스-틸, 불변성 잉크! (S-3000)